

'밤의 해변에서 혼자' 3월 23일 개봉 확정

'불륜 스캔들' 휩싸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에 또다시 비난 여론 쏟아질 듯

배우 김민희(34)에게 베를린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긴 홍상수 감독의 신작 밤의 해변에서 혼자(이하 '혼자')가 다음 달 23일 개봉을 확정했다고 제작사 전원사가 21일 밝혔다.

김민희가 상을 받으면서 두 사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져 영화가 개봉하면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진행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홍보를 맡고 있는 무브먼트 측은 이날 이와 관련, "홍 감독이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언제 귀국할지도 알 수 없다. 감독이 귀국한 뒤의 눈을 해박히 언론 시사화 등 추후 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의 19번째 장편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과 여배우의 사랑을 다뤘다는 점에서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홍 감독과 김민희에게 다시 한 번 비난 여론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작품에는 실제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을 알 수 있는 대사와 장면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왜들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야. 왜 난리들을 치는 거야"라는 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배우 명희를 연기한 김민희가 유부남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서영화)에게 큰절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 홍 감독이 자신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 장면으로 표현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이 작품과 관련해 현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또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 아직 국내에서 개봉한 게 아니어서 정확한 맥락을 알 수 없지만, 영화의 예전 남자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영화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들이 김민희와 홍 감독을 실제 삶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해외 언론 또한 이 작품을 김민희와 홍 감독의 실제 관계와 연결지어 봤다. 앞서 16일 열린 밤의 해변에서 혼자 공식 기자회견에서 홍 감독은 이 작품이 감독 자신의 이야기라는 물음에 "모든 감독은 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는 영화에

내 삶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이 자전적인 영화는 아니다"라고 했다. 할리우드리포터는 "홍 감독은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는 김민희를 캐스팅해 남자와 여자의 삶에서 사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그의 주제로 돌아왔다"고 평했다. /뉴시스



이상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500m 은메달

'빙속 여제' 이상화(28·스포츠투토)가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또다시 고다이타 나오(31·일본)에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상화는 21일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의 홋카이도-도카치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37초70을 기록, 2위에 올랐다.

금메달은 37초39를 기록한 고다이타의 차지가 됐다. 이상화는 고다이타에 0.31초 차로 밀려 금메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이상화는 고질적인 왼 무릎 부상에 오른 종아리 근육 미세 파열 통증까지 안고 있음에도 이번 대회에서 1000m에 이어 500m도 출전, 후환을 불태웠다.

이상화는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에서도 고다이타에 금메달을 내줬다.

이상화는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다. 2007년 창춘 대회에서는 여자 500m 은메달을 따고, 2011년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 500m에서는 위징, 왕웨이싱(이상 중국)에 밀려 동메달에 그쳤다.

고다이타는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 500m 금메달에 이어 동계아시안게임 2관왕에 등극했다. 전날 1000m에서도 금메달을 딴 고다이타는 2관왕에 오르며 상승세를 뽐냈다.

이상화는 아웃코스에서, 고다이타는 인코스에서 스타트를 끊었다. 이상화는 초반 100m를 10초44로 통과했다. 10초52로 결승선을 통과한 고다이타보다 0.08초가 빨랐다.

그러나 막판 스피드에서 고다이타에 밀리고 말았다. 이상화는 나머지 400m를 27초27로 주파했다. 반면 고다이타는 26초87로 나머지 400m를 통과하면서 이상화를 제쳤다. /김민근기자

방탄소년단 '낫 투데이' 최단기간 1천만뷰 기록 돌파

공개 21시간 38분만에 유튜브 조회수 1029만3859건

대세 그룹 방탄소년단의 고공행진의 날개가 꺾이지 않고 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20일 0시30분 공개한 '윙스(WINGS)' 외전 : 유 네버 워크 얼론 (YOU NEVER WALK ALONE)'의 수록곡 낫 투데이(Not Today)' 뮤직비디오가 공개 21시간 38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29만3859건을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은 이에 따라 지난해 타이틀곡 '불날'의 뮤직비디오로 세운 K팝 최단 시간 1000만 뷰 돌파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앞서 '불날' 뮤직비디오는 지난 13일 0시 공개 후 26시간 38분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며 K팝 그룹 사상 최단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어 지난 16일 역대 K팝 그룹 뮤직비디오 가운데 최단 기간 2000만 뷰 돌파에 이어 21일 오전 0시12분께 유튜브 조회수 3000만뷰를 넘겼다.

방탄소년단은 전날 정규 2집 '윙스(WINGS)' 타이틀곡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넘기면서 '절어', '불타오르네'에 이어 총 3편의 메가히트 뮤직비디오를 보유한 그룹이 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23일 엠넷 뎀 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음악방송 무대를 선보인다.

/뉴시스



연기 급상승 동영상 #28
BTS 'Not Today' MV
ibighit
3,064,162
조회수 10,293,859회
689,564 12,491

빙속 차민규, 이틀 연속 메달 좌절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차세대 기대주 차민규(24·동두천시청)가 이틀 연속 메달 획득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차민규는 21일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의 홋카이도-도카치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1분50초51을 기록해 6위에 올랐다.

전날 남자 5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차민규는 이틀 연속 메달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쇼트트랙 선수 출신인 장원훈(28·의정부시청)이 1분10초43을 기록, 5위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모태범(28·대한항공)은 1분10초80을 기록해 7위에 머물렀다.

남자 1000m 금메달은 1분09초33을 기록한 오다 다쿠로(일본)의 차지가 됐다.

앞서 열린 여자 1500m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메달 수확에 실패했다. 노선영(28·강원도청)은 2분01초69를 기록해 7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들 중 순위가 가장 높았다.

다가기 자메 중 동생인 다가기 미호(일본)가 1분56초07로 금메달을 가져갔다. 그는 이레인 뷔스트(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던 트랙 레코드(1분56초38)를 0.96초 앞당겼고, 왕페이(중국)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기록(1분58초37)도 갈아치웠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